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에 갖는다.

가끔 도시계획위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작·간 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에 간여하는 사건이 뉴스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제척·기피를 명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원회 회의의 시작 전에 공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신뢰 회복

선정을 연임 3회, 총 6년 이상을 못하도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도시계획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와 언론의 반대에 부딪힌 광주시는 2022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1회, 총 6년으로 강화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올해 초 도시계획위원을 새롭게 공모하였으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자격 조건을 갖춘 도시계획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몇 번의 재공모를 통해 겨우 구성하였다.

한편으로 행정의 뜻대로 심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허수아비' 역할만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 근거는 회의 결과 중 부결된 횡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가능하면 존중하려는 측면에서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 중 원안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위원회의 성격은 행정의 결정을 지원하는 기구이므로 지방의회와 같은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국토부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 원칙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요구, 예를 들면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비밀투성이' '깜깜이' '비밀위원회'라는 지적과 함께 너무 폐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회의 진행은 그동안 위원들의 소신 발언, 심의의 공정성, 돌발 상황 발생 등을 우려해서 비공개 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분위기에서 대부분 대학 교수인 전문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진여고 교사

"방안에 켜져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곁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갈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세조 때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작형(灼刑)을 당하면서 의연했던 '이개'의 단가이다.

이름만 불렀을까. 성명을 같이 불렀을까. 물론 성인이 되어선 백옥현(白玉顯)이라는 호를 주로 썼겠지만, 유년 시절에는 성과 명을 같이 또는 따로 부르든, 지금 같으면 상당한 놀림감이 되고, 언어 폭력 소송까지 가고 남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는 조선 중기까지 이중 모음어였고 게다가 당시 개는 '가'라고 했으니 우리 호기심은 여기까지다. 인디언 이름도 독특하다. 이들은 캔자스주를 '남쪽

이름의 진화

바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듯이 주로 자연에서 이름을 취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늑대와 춤을'은 남자 주인공에게, 그의 연인은 '주먹 쥐고 일어서'로 인디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고대사에 나오는 을지문덕은 탁월하고 대단하신 분, 연개소문은 진달래꽃, 박혁거세는 밝은 세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름은 이렇게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제 치하 작품을 읽다 보면 개똥 서운 말뚝 농뿔이처럼 참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이 많다.

우리가 자란 마을은 대부분 씨족 공동체였다. 자작 일촌이어서 이름만 봐도 항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른바 이름에 목화도금수라는 한자 부수를 넣는 방식으로 서열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지금의 50~60대 세대는 기존 이름에 대한 저항감과 새로운 이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결과 한

세대 뒤 90년대는 정형화된 틀과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들의 바람이 작명예 그대로 나타났다. 한글 이름 짓기 바람이 휘몰아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10여 년 뒤에는 양이 많지 않고, 어릴 때는 자연스럽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무게감이 떨어진다. 한자어이지만 예스럽지 않고 한글과 잘 어울리는 세련된 이름들, 무엇보다 다정한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호명하기 쉬운 친근한 지금의 이름들이 대거 등장한다.

한때, 프로그아에서 개명 바람이 불기도 했다. 지금의 상황을 바꿔 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작가들도 소설을 쓸 때 고민하는 것이 등장인물 작명이다.

이름은 실재를 대신하는 고유 명칭이다. 그런데도 분명 입신양명이나 호명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과연 30년 60년 뒤에는 어떤 유형의 이름이 또 유행할까.

기고



배세하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며칠 만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하지만 지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자연 치유가 어려우며, 합병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건강한 지구는 충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지구의 상태는 이미 자정 능력을 넘어서서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 폭염, 폭설, 태풍, 산불, 가뭄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은 지구가 보내는 염증 반응이다.

전남 탄소중립 비전 선포 2주년을 맞아

강, 생계, 식량 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말은 좋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싶어 막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국가, 지자체 모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전남도는 비전 선포 2주년을 맞아 '전남의 미래를 위한 실천, 탄소중립'을 주제로 탄소중립 주간을 설정하고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 및 분과위원회, 탄소중립 정책포럼, 블루카본 심포지엄,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협약식 등을 개최했다.

도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비전 선포 2주년을 맞아 '전남의 미래를 위한 실천, 탄소중립'을 주제로 탄소중립 주간을 설정하고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 및 분과위원회, 탄소중립 정책포럼, 블루카본 심포지엄,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협약식 등을 개최했다.

나는 탄소중립 주간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부터 우리는 실천 행동을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 없이 탄소중립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내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 주관을 맞이해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천을 하자.

社說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철저히 따져야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늘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활동에 돌입한다.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한 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찰단은 오늘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회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조속한 판결을” 강제 동원 피해 할머니의 호소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93·나주) 할머니가 엇그제 광주지법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조속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 할머니는 단순 변론 기일이어서 변 호사만 참석하면 될에도 이날 고령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을 찾았다. 그 이유는 정 할머니 등 네 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을 상대로 낸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할머니가 일본에서 감옥 같은 생활 속에 갇은 고생을 겪었음 에도 1000원도 안 되는 후생연금 탈퇴 수 당을 받은 억울한 사연을 직접 알리고 싶 어서였다.

이 재판은 법원이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피고 일본 기업에 송달 하지 않아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계속 출석 하지 않으면서 3년째 공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모르는 안하무인적 태도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어 버린 우리 정부의 굽속죄인 해법 속에 고령 이 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시간은 속절 없이 흘러가고 있다.

정 교수가 지난 20일 (제)호남문화재단 구원 연수 강의('고고 자료를 통해 본 고조선과 낙랑군')에서 야쓰이를 다시 소환 했다. 정 교수가 입수한 야쓰이의 자료에 는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 광개토대왕비 자료가 포함돼 있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無等鼓

야쓰이 세이이츠(谷井濟一)는 1917년 나주 반남고분을 발굴한 식민 사학자다.

정 교수가 지난 20일 (제)호남문화재단 구원 연수 강의('고고 자료를 통해 본 고조선과 낙랑군')에서 야쓰이를 다시 소환 했다. 정 교수가 입수한 야쓰이의 자료에 는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 광개토대왕비 자료가 포함돼 있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탄복업자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광개토대왕 비문 문구를 참조한 정황이 있다. 재일사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 한 비문 변조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설

했다. 원본이 변조됐다면 경위를 추적해 지금까지 연구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